

호머와의 대응관계 넘어서기: “텔레마코스”에 나타난 다원적 관점*

최 석 무

I

모더니스트 작가들은 19세기 작가들과 구분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신화사용이다.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도 신화를 여러 작품에서 사용하여 이전 작가들과 다른 작품세계를 펼친 작가이다. 그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 다이달로스(Daedalus) 신화를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신화를 활용한 글쓰기의 묘미를 잘 보여준다. 다이달로스 신화는 예술가로서의 스티븐의 미래를 조망하게 한다는 점에서 작품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준다. 조이스에게 신화는 “이야기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원형적인 관계나 사건”으로 독자들은 이 신화를 기억하고 작품을 읽으면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Geheber 170). 조이스는 특히 『율리시스』(*Ulysses*) 집필 과정에서 신화의 중요성을 주위에 설파하곤 했다. 조이스는 프랭크 버진(Frank Budgen)에게 “내 책은 현대판 『오디세이』(*The Odyssey*)이지요. 그 속에 있

* 이 연구는 2019학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olleg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Grant in 2019).

는 각각의 에피소드가 율리시스의 모험과 대응을 이루고 있지요”라고 말하였다(20). 조이스는 1922년 11월 10일에 『율리시스』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의 숙모인 조세핀 머레이(Josephine Murray)에게 『율리시스』를 읽는 방법으로 호머(Homer)의 『오디세이』를 읽을 것을 권한다. 특히 “찰스 램(Charles Lamb)이 쓴(호머의 이야기를 많이 축약해 쉬운 영어로 쓴) 『율리시스의 모험』(*The Adventures of Ulysses*)을 구입하세요. 하룻밤에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L I, 193). 오늘날 『율리시스』를 처음 접하는 독자도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한다. 호머에 대한 이해가 『율리시스』 이해의 기본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에이미스(Keri Elizabeth Ames)는 “『율리시스』는 상호텍스트성이 탁월한 책이다. 작가는 상호텍스트성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오디세이』와 『율리시스』를 순차적으로 읽게 한다”고 말한다(Ames 48).

조이스는 『율리시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두 개의 스키마를 제공하였는데, 이 스키마는 “작업 노트(working notes)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주도면밀한 질서 부여하기와 구조화 작업, 풍부한 상호텍스트성, 내러티브의 변화와 중단 지시와 같은 것은 『율리시스』가 어떤 작품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Platt 101). 이 스키마가 보여주듯이 조이스는 『율리시스』 각 장의 제목을 호머의 『오디세이』에서 차용하는 것으로 그리스 신화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이스는 『율리시스』를 『리틀 리뷰』(*Little Review*)지에 연재할 때 “호머식 제목을 각 에피소드에 붙일 것을 강조했다”(Ellmann, *Consciousness* 24). 조이스는 1922년에 『율리시스』를 출판하면서 각 장의 제목을 삭제했지만, 율리시스라는 책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신화의 중요성을 여전히 보여준다. 율리시스라는 인물이 작품 속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율리시스라는 제목은 특이하다. 제목은 제명(epigraph)과 더불어 “독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명시적인 논평”(Booth 298)이기에 조이스는 율리시스라는 제목을 통해 『오디세이』 신화가 작품 이해에 중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스튜어트 길버트(Stuart Gilbert)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James Joyce's Ulysses*)라는 비평서를 집필할 때, 조이스는 길버트로 하여금 그 책의 각 장을 읽도록 하게 하여 수정을 가하는 방식으로 그를 도왔다. 그리고 조이스는 그 비평서를 “연재물과 단행본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었다”(Ellmann, *James* 616). 이 책에서 길버트는 조이스가 제시한 스키마에 기반하여 『율리시스』 속에 『오디세이』 장면이 어떻게 대응되는지 자세히 논하고 있다.

그러나 1937년에 블라디미르 나보코프(Vladimir Nabokov)와 나눈 다음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조이스는 자신의 작품에서 신화의 의미에 대해 과소평가한다.

조이스는 현대문학에서 신화를 사용하는 것을 폄하하는 말을 했다. 나보코프는 놀라서 “그렇지만 당신은 호머를 사용했잖아요!”라고 대답했다. 조이스의 대답은 “번덕이었소”였다. “그렇지만 당신은 길버트와 같이 작업했지요.”라고 나보코프는 집요하게 캐물었다. 조이스는 “끔찍한 실수였소. 책을 광고하기 위해서였소. 대단히 후회하오.”라고 말하였다. (Ellmann, James 616)

신화사용에 대한 조이스의 이러한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신화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이미 두 권의 소설을 출판하였고, 신화를 토대로 한 또 다른 소설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의 집필을 거의 끝내고 있는 작가에게 있어서 신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신화에 근거하여 확일적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경계로 볼 수 있다. 비평가가 특정 작품에 대해서 비평하는데 작가가 그 방향제시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조이스는 길버트에게 자신의 작품을 이해하는 방향제시를 통해 그의 작품에 대한 독자의 해석을 일원화할 수 있다는 위협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보코프와의 대화는 이러한 염려를 잘 보여준다. 데이비드 노리스(David Norris)가 지적하듯이, 조이스는 각 장의 호머식 제목을 지움으로써 “비평적 관심이 그의 작품에서 서사시 원문으로 옮겨가는 것과 두 작품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데 집중하는 것을 피하고, 『율리시스』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분석되기를 원했을 것이다”(108).

『율리시스』가 호머의 신화를 배경막으로 사용하고 있고, 조이스가 호머와 『율리시스』 인물간의 대응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의 작품을 이러한 대응관계에서만 보면 안 된다. 조이스가 작품홍보의 수단으로 호머를 강조한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그가 제시한 스킨마도 작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조이스가 제시한 호머와의 대응관계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텍스트 자세히 읽기를 통해 진단하고자 한다. 『율리시스』는 『오디세이』 신화를 패러디한 작품이지만, 호머와 일대일 대응관계를 형성할 정도로 단순한 작품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율리시스』 첫 번째 장인 “텔레마코스”(“Telemachus”)를 예로 들어 조이스가 스킨마에서 제시한 호머와의 대응관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호머와의 대응관계를 넘어서는 작품읽기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조이스의 스키마에 따르면 “텔레마코스”는 “Stephen — Telemachus, Hamlet; Buck Mulligan — Antinous; Milkwoman — Mentor”라는 호머와의 대응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대응관계는 인물의 관계를 선/악으로 도식화하여 이분법적 해석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독자는 스키마에 따라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인물이 『율리시스』에 어떻게 재현되는지 찾고자 한다. 『오디세이』에서 텔레마코스는 아버지 오디세우스(Odysseus) 장군이 전쟁에 나간 후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인 페넬로페(Penelope)의 청혼자들(대표적 인물 안티노우스)이 왕실의 재산을 탕진하고 왕위를 찬탈하려 하는 고통을 당한다. 마찬가지로 스티븐은 ‘찬탈자’ 멀리건에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한다. 『율리시스』의 많은 비평이 이러한 도식화에 근거하여 두 인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텔레마코스는 멘테스(Mentes)와 멘토(Mentor)로 변장을 한 아테네(Athene) 여신으로부터 조언을 듣기 전에는 왕실과 어머니를 보호할 방법을 모른다는 점에서 미숙한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한 인물이다. 그는 아테네 여신의 조언을 듣고 왕실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 인물로 바뀐다. 반면에 스티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조이스 비평에서 학자들은 흔히 블룸(Bloom)과 스티븐(Stephen)을 비교하면서 “스티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거의 말하지 않는다. 그는 자아도취적, 이기적 또는 적어도 자기 생각에 잠긴” 인물로 평가된다(Gibson 21). 그렇지만 “텔레마코스”에서 스티븐을 멀리건(Mulligan)과 비교할 때 선/악의 구분이 명확해진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오늘날 비평의 주류가 된 탈식민비평은 스티븐과 멀리건의 관계를 기존의 비평에서처럼 선/악으로 본다. 스티븐은 피지배자의 전형적인 인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멀리건은 지배자인 영국인 헤인즈(Haines)를 따라 다니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인물로 본다. 예를 들어, 빈센트 쉹(Vincent Cheng)은 스티븐을 피지배자로, 멀리건을 “목마(말처럼 생겼고 ... 얽은 참나무 색과 결을 가졌기에)가 상징”하는 “배반할 성격을 지닌 식민지 협력자”로 본다(151-52). 또한 엔다 더피(Enda Duffy)는 스티븐을 “지배받는 상황에서 필연적, 구조적으로 생성되는 정신적 열등감과 복종하는 습성을 가진 하위주체(subalterity)의 기표”로 보고, 멀리건을 “식민 지배자인 영국인 헤인즈의 사냥개”로 본다(Duffy 37-38).

사실 “텔레마코스”에서 멀리건을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면이 여러 군데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티븐이 집세를 낸 마텔로(Martello) 탐을 멀리건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는 스티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영국인 친구 헤인즈를 탐에 목게 한다. 빈센트 쉐이 지적하듯이, 스티븐이 멀리건에게 하는 첫 질문은 “헤인즈가 이 탐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거니?”(U 1.49)이다. 스티븐과 멀리건의 갈등은 안티노우스처럼 다른 사람의 거주지를 무단 점거하여 발생한다. 스티븐이 “그가 여기 계속 머문다면 나는 갈 거야”(U 1.62-63)라고 이별을 통보하지만, 멀리건은 스티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회피성 발언을 하다가, “[헤인즈]가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세이무어를 데리고 와서 크라이브 캠프토프에게 한 것 보다 더 심하게 혼내줄거야”(U 1.162-64)라고 한참 후에 말한다. 이것은 스티븐의 질문을 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회피성 전략이다. 멀리건은 마텔로 탐에서 주인 스티븐을 내쫓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결심을 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다는 점에서 ‘찬탈자’이다.

멀리건은 스티븐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거주지를 포기하게하기 위해 스티븐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멀리건은 스티븐의 헤인즈의 체류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스티븐에게 손수건을 빌린다. 그는 손수건의 “초록색 콧물”(U 1.73)을 “콧물처럼 푸른 바다”(U 1.78)와 연결시키고, 바다를 “위대하고 다정한 어머니”(U 1.77; 80)라고 부르면서 어머니를 대화 소재로 끄집어낸다. 그는 바다를 어머니에 비유하여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스티븐의 죄책감을 불리일으켜 헤인즈 문제를 잊어버리게 한다. 멀리건이 포티풋(fortyfoot)을 향해 가면서 예수 승천을 흉내 내는 장면 또한 스티븐의 아픈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이 장면은 인물에 따라 다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스티븐의 경우에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결말부분에서 다이달로스처럼 미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상한 경험을 상기시킬 수 있다. 스티븐은 『울리시스』에서는 실패한 예술가로 아일랜드에 돌아오는데 이 때 그는 이카로스(Icarus)의 모습이다. 특히 포티풋에 거의 도달했을 때 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에 관해 이야기 하는 장면은 이카로스처럼 추락한 스티븐의 현실과 유사하다. 익사한 사람이 “나 여기 있소”(U 1.677)라고 말한다고 스티븐이 상상하는 장면은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암시하기에 그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는다. 그의 아픈 상처를 교묘하게 끄집어내어 모멸감을 가져다 준 멀리건에 대해 스티븐은 증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멀리건이 스티븐에게 열쇠를 요구하는 방식도 교활하다. 멀리건은 스티븐에게 “속옷을 평평하게 누르게 열쇠를 쥐”(U 1.721)라고 말하면서 열쇠를 빼앗는다. 더군다나 “한잔 마시게 2펜스”(U 1.724)까지 요구한다. 그는 스티븐을 “가난한 자”(U 1.727)라고 명명하면서도 돈을 갈취하는 뻔뻔스러운 인물이다. 이때 조이스는 멀리건을 “살찐 몸”(U 1.729)으로 지칭한다. 조이스는 멀리건이 스티븐의 소유물을 빼앗는 장면에서 그의 몸 상태를 언급한다. 『율리시스』에서 “살찐”이란 상태는 부정적인 인물묘사로 흔히 사용된다. 『율리시스』는 “당당한 살찐 벽 멀리건”(U 1.1)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살찐 멀리건의 상태는 의미심장하다. 그는 “잘 먹은 목소리”(U 1.107)의 소유자로 부유한 집안출신이다. 그런 그가 ‘가난한 자’인 스티븐이 가진 것을 빼앗기에 ‘찬탈자’로 묘사된다.

조이스의 스키마에서처럼 멀리건이 안티노우스와 같은 찬탈자임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렇다고 멀리건만을 찬탈자로 규정할 수는 없다. 첫 번째 장의 마지막 단어인 “찬탈자”(U 1.744)라는 말은 멀리건을 묘사하는 구절인 “물개처럼 윤기있는 갈색 머리”(U 1.742-43) 바로 다음에 나오기에 멀리건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장 전체를 보면 그렇게 쉽게 단언할 수 없다. “찬탈자”(U 1.744)라는 단어가 나오기 직전에 스티븐이 멀리건과 헤인즈를 대하는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티븐은 멀리건보다 헤인즈를 더욱 부정적으로 대한다. 멀리건과 헤인즈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우리’라고 표현한다. 멀리건은 스티븐에게 “Give us that key”(U 1.721)라고 말하고, 헤인즈는 스티븐에게 “We’ll see you again”(U 1.730)이라고 말한다. 스티븐은 헤인즈의 작별인사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정복자로서의 영국인의 정체성을 탐색한다. 스티븐은 헤인즈가 자신을 “길들여지지 않은 애란인”(U 1.731)이라고 여길 것이라 생각하고 “영국인의 미소”(U 1.732)를 포함해서 전통적으로 아일랜드 사람들이 경계할 3가지를 상기하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 이는 앞서 스티븐이 헤인즈의 창백한 눈을 보면서 “바다의 지배자”(U 1.574)라는 영국인의 정체성을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에 스티븐은 멀리건과는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다. 멀리건이 “12시 반, 더 쉽 주점”(U 1.733)에서 만나자고 하자, 스티븐은 “좋아”(U 1.734)라고 대답한다. 스티븐이 떠나갈 때, 멀리건이 바닷물 속에서 “다정한 목소리로 한결같이”(U 1.741) 스티븐을 부르자, 스티븐은 “손을 흔들면서”(U 1.742) 화답한다. 스티븐은 멀리건에게 얼마나 오래 자신의 거주지에 머물지 묻지 않는다. 그의 이의

제기는 헤인즈의 경우로 국한되고 헤인즈가 갈등의 발단이 된다. 마고 노리스(Margot Norris)가 주장하듯이, 스티븐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자신을 모욕한 멀리건에 대해서 거의 1년 동안 말을 아껴왔다. 일 년이 지난 후 그를 분노케 한 “촉진제는 헤인즈의 존재” 때문이다(Norris 27). 스티븐이 멀리건을 대하는 태도는 『오디세이』에서 텔레마코스가 이타카(Ithaca)를 떠나기 전에 안티노오스가 손을 잡으며 말을 걸자 텔레마코스가 하는 행동과 전혀 다르다.

‘나는 필로스에 가던, 아니면 이곳에 있건 간에 당신들에게 치명적인 운명을 가져다 줄 것이요. 물론 나는 떠날 것이지만 나의 여행은 헛된 일이 아닐 것이요. 나는 배도 선원들도 없기 때문에 배를 빌릴 것이고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 당신들은 아주 기쁘겠조.’

이렇게 말을 하고는 텔레마코스는 안티노오스의 손을 세차게 뿌리쳤다. (45)

텔레마코스의 안티노오스에 대한 단호한 행동은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멀리건 보다는 헤인즈를 대하는 태도에 더 잘 반영되어 있다.

사실 스티븐의 멀리건에 대한 태도는 애매모호하다. 마릴린 프렌치(Marilyn French)에 따르면, 스티븐은 멀리건이 “찬탈자이면서 영웅”이라 생각하기에 마비된 인물이다. “반대되는 상황을 동시에 생각하고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점은 마비를 가져온다”(French 67-68). 스티븐의 멀리건에 대한 양가적 감정은 안티노오스처럼 자신의 거주지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그에게 단호히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텔레마코스”에는 멀리건이 배반자나 찬탈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 제시되어 있지만, 그 반대로 멀리건의 영국인에 대한 적대감 또한 은연중에 표현되어 있다. 멀리건은 스티븐과 같이 있을 때 헤인즈를 “끔찍한,” “덩치 큰 영국놈”(U 1.51)이라고 부르면서 스티븐과 애란인으로서의 동료의식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것이 멀리건의 계산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면, 다음 장면에서 멀리건의 말은 헤인즈에게 위협적이다.

—겨울에는 좀 황량하겠네, 내 생각엔 말이지. 이 탑을 마텔로라 부르지요?

—빌리 핏이 만들었지, 프랑스인들이 배를 타고 올 때. 그렇지만 우리 것이 세상의 중심이야. 벅 멀리건이 말했다.

—햄릿에 대한 너의 생각이 무엇이지? 헤인즈가 스티븐에게 물었다. (U 1.542-45)

멀리건은 답 이름을 묻는 헤인즈의 질문에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반영국적인 메시지를 은연중에 표현한다. “프랑스인들이 배를 타고 올 때”는 1798년 봉기와 관련된 속요로 프랑스 군이 아일랜드 봉기를 도와주러 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에이츠(W. B. Yeats)의 희곡 『캐슬린 니 홀리한』(*Cathleen Ni Houlihan*)에도 나온다. 에이츠의 희곡이 1902년에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이 구절의 정치적 의미는 간과할 수 없다. 헤인즈는 이때 민감한 정치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스티븐에게 말을 건다. 멀리건은 스티븐처럼 직설적으로 헤인즈에게 영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는데 이 장면은 특이하다. 『율리시스』 시작은 멀리건이 라틴어 모의미사를 거행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 장면 또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빈센트 쉐은 멀리건이 영창하는 미사시작을 알리는 라틴어 구절인 “하나님의 재단으로 가련다”(U 1.5)에 주목한다. 이 구절은 “유대인의 추방과 이산, 조국과 자치를 위한 투쟁의 역사를 상기시킨다”(151). 제국주의 협력자로 흔히 지칭되는 멀리건이 아일랜드의 식민역사를 상기시키는 유대역사에 대한 언급으로 『율리시스』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멀리건을 조이스의 스키마에 있는 다른 인물로도 볼 수 있다. 그는 안티노우스와 같은 찬탈자 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많지만, 멘테스와 멘토로 변장한 아테네 여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조이스의 스키마에는 우유배달 할머니가 멘토라고 되어 있고 그녀는 멘토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사자”(messenger)(U 1.400; 406)로 두 번 언급되지만, 사자로서의 역할은 거의 수행하지 못한다. 신화에 따르면 아테네 여신은 텔레마코스에게 현재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페넬로페와 거리를 유지하고 오디세우스 장군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충고를 한다. 우유배달 할머니도 스티븐에게 충고를 해야 하는데 그녀는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그녀의 지배자와 쾌활한 배반자”(U 1.405)로 묘사된 헤인즈와 멀리건과만 대화를 나눈다. 스티븐이 그녀에게 “[헤인즈]가 하는 말을 이해하세요?”(U 1.424)라고 말을 걸자, 그녀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헤인즈와 멀리건과 대화를 나눈다. 대화에서 소외받은 스티븐은 “세 개의 컵에 차”(U 1.441)를 따르는 일을 할뿐이다. 그녀가 등장해서 스티븐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은 두 장면으로, 할머니가 “얼마나 드릴까요?”라는 질문에 스티븐이 “1쿼트요”(U 1.396)라고 대답하는 장면과, 스티븐이 멀리건의 돈을 받아 할머니에게 전달해 주면서 “2펜스는 외상입니다”(U 1.458)라고 덧붙여 말하는 장면이다. 이 장

면은 호머에서 멘토가 텔레마코스에게 충고하는 장면과 거리가 멀다. 스티븐은 할머니와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다. 스티븐은 어머니가 좋아하신 판토마임에 나오는 “나는 보이지 않는 것(*invisibility*)을 / 즐길 수 있는 / 소년이지요”(U 1.260-62)라는 구절을 생각하는데, 그 소년과 달리 우유배달 할머니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Kiberd, Notes 946). “키르케”(“*Circe*”)에서 “우유배달 할머니는 늙은 노파(*Old Gummy Granny*)로 다시 등장”하는데 “텔레마코스” 장에서와 달리 스티븐에게 충고를 한다 (Gilbert 107). 그녀는 영국군인인 카 일병(*Private Carr*)과 갈등을 겪고 있는 스티븐에게 칼을 내밀면서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충고를 한다: “여보게, 그를 없애 버려. 오전 8시35분에 너는 천국에 갈거고 아일랜드는 해방이 될거야”(U 15.4737-38). 이 장면은 아테네 여신이 텔레마코스에게 왕자의 책무에 관해 충고하는 것을 상기시킨다. “텔레마코스” 장에서 우유배달 할머니는 스티븐에게 아무런 충고를 하지 못한 채, “어떤 상황에서든 지배자가 말하는 것에 동의하고자 하는 노예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Duffy 50). 사자로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데이비드 와이어(*David Weir*)는 그녀가 “지혜롭지 못한 아테나 여신 같은 인물이지만, 그래도 스티븐이 떠날 수 있게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에 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18).

우유배달 할머니가 아니라 멀리건이 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유배달 할머니는 “사자”로 두 번 언급되지만, 멀리건은 사자를 상기시키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을 “*Mercurial Malachi*”(U 1.518)라고 부르는데 “*Mercurial*”는 “진한 자주색 장갑과 초록색 신발”(U 1.516)처럼 모순되어 보이는 의상을 좋아하는 자신의 ‘변덕스러운’ 모습을 묘사하는 형용사로 볼 수 있지만, 이는 또한 전령신인 머큐리(*Mercury*)를 떠올리게 한다. ‘머큐리’와 ‘말라카이’ 이 두 단어는 ‘사자’를 상기시킨다. “말라카이는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라는 의미이고, 머큐리는 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사자이다”(Gifford 22). 머큐리는 아버지인 제우스(*Zeus*)의 명령에 따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요정”인 칼립소(*Calypso*)에게 가서 신들이 “오디세우스의 귀환을 결정”했으니, “그녀로 하여금 오디세우스를 떠나게 두어야 한다”는 명령을 전한다(Homer 109). 멀리건의 머큐리로서의 역할은 포티푯을 향해 “날개 같은 손을 퍼덕이며, 머큐리의 모자(*Mercury’s hat*)를 신선한 바람에 휘날리면서”(U 1.600-02) 뛰어 가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된다.

조이스는 멀리건의 모자를 ‘머큐리의 모자’라고 명명하면서 멀리건을 사자인 머큐리와 연결시키고 있다.

멀리건은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멘테스와 멘토로 변장한 아테네 여신을 상기시킨다. 위에서 언급한 멀리건의 나는 듯한 모습은 아테네 여신이 “하늘을 날아 올라 새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연상시킨다(Homer 25). 아테네 여신은 텔레마코스에게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기억”하라고 말한다(Homer 22). 멀리건도 스티븐에게 자신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유일한 사람”인데 “왜 자신을 더 믿지 않지?”(U 1.160-61)라고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한다. 스티븐이 우유배달 할머니나 헤인즈에게서 희망을 볼 수 없다고 말하자, 멀리건은 “자신에게서”(U 1.503) 희망을 발견하라고 말한다. 흥미로운 것은 멀리건이 예수를 흉내 내는 점이다. 그는 옷을 벗을 때 “멀리건은 옷이 벗겨지도다”(U 1.510) 등에서와 같이 스티븐 앞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를 흉내 낸다. 예수가 서구인들의 믿음의 대상이듯이, 멀리건은 예수를 흉내 내면서 스티븐이 자신을 믿어 주기를 바란다.

『오디세이』에서 아테네 여신은 텔레마코스에게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는데 멀리건도 유사한 역할을 한다. 차이점은 신화에서는 어머니로부터 거리를 두라는 메시지이지만, 여기서는 임종 시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스티븐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스티븐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하여 멀리건과 논쟁을 벌이면서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모욕”(U 1.220)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독자들은 미성숙한 스티븐의 모습을 본다. 멀리건이 스티븐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U 1.222)라고 탄식을 하는데 많은 독자들이 멀리건의 탄식에 공감하는 것은 그가 안티노우스가 아니라 아테네 여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테네 여신은 텔레마코스에게 아버지를 찾아 나서라고 말하는데 멀리건은 은연중에 이러한 메시지를 스티븐에게 전한다. 그는 헤인즈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스티븐의 셰익스피어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은연중에 “킨치 아버지의 명령이여!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야벳”(U 1.561)이라고 말하면서 스티븐의 당면과제가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일임을 언급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새”이기에 “목수인 요셉”(U 1.585-86)과 거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부성의 문제를 다시 언급한다. 차이점은 텔레마코스가 진짜 아버지를 찾아 나서지만, 스티븐은 육신의 아버지를 경멸하고 이를 대체할 정신적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점이다. 멀리건이 스티븐에게 “더 쉽”(The Ship)(U 1.733)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

은 그를 사자로 설정한 조이스의 의도를 엿보이게 한다. 이것은 “더 쉽”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위한 약속이지만, ‘배’라는 의미의 술집은 『오디세이』에서 텔레마코스에게 배를 타고 떠날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하는 아테네 여신을 코믹하게 상기시킨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멀리건은 악한 안티노우스뿐만 아니라 긍정적 인물인 아테네 여신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멀리건은 또한 스티븐과 비교해서도 긍정적인 인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다. 그는 스티븐보다 먼저 일어나 면도를 하고 식사준비를 한다. 자신이 계란 프라이를 하고 스티븐에게 “빵, 버터, 꿀”(U 1.334)을 식탁에 가져오라고 시키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스티븐이 “그의 짠맛 나는 빵”(U 1.631)을 먹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빵도 멀리건이 구입한 것이다. 우유 배달 할머니에게 우유 값을 지불한 것도 멀리건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유 값으로 2펜스가 모자라는데 스티븐은 2펜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놓지 않은 사실”이다. 그는 “오늘 월급날인데도 불구하고 주머니에 현금이 좀 있다”(Wachtel 103).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텔레마코스” 마지막 장면에서 멀리건이 스티븐에게 2펜스를 요구하는 장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앨버트 와치텔(Albert Wachtel)은 이 장면에서 멀리건을 비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흔히 멀리건을 비난하기 위해 “for a pint”뒤에 “of stout”이 있다고 가정하여 멀리건이 술을 마시기 위해 2펜스를 가져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2펜스는 “1 파인트의 우유 가격”이라는 점에서 “of stout”가 아니라 “of milk”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펜스는 또한 우유 배달 할머니에게 “빚진 돈”과 같다(Wachtel 103). 따라서 멀리건이 2펜스를 요구한 것은 남은 우유 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스티븐은 가톨릭교회의 정통교리를 반대하는 이단의 무리를 이야기하는데, 멀리건이 그리스 정교회회를 설립한 “포티우스(Photius)와 조롱자의 무리”(U 1.656-57)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멀리건이 정당한 상속자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면 스티븐은 가톨릭 정통교리를 물려받고 있는 정통파인가? 멀리건이 이야기 하듯이, 스티븐은 정통파인 “예수회 교도”(U 1.8) 출신으로 예수회 계통의 학교를 나왔다. 그런데 그는 어머니의 임종 시 기도를 거부하는 등 가톨릭 자체를 거부하는 인물로 바뀌었다. 스티븐이 헤인즈에게 이야기 하듯이, 우리는 스티븐에게서 “자유사상의 끔찍한 예를 본다”(U

1.625-26). 따라서 스티븐의 논리대로 멀리건의 종교관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스티븐이 멀리건보다 가톨릭에 대한 반감이 더 크다. 멀리건은 수영장에서 신부를 맞닥뜨리자, “엄지손톱으로 이마와 입술과 가슴뼈에 경건하게 성호를 그었다”(U 1.693-94). 와치텔이 주장하듯이, 세 번 성호를 긋는 것은 “두 번 긋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미사에서 복음서를 읽을 때에만 행한다”(102). 멀리건은 가짜신부의 역할을 하면서 불경스럽게 보이지만, 진짜 신부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을 잊지 않는다.

스티븐은 멀리건에게 많은 신세를 졌다. 그는 “9 파운드, 양말 세 켤레, 구두 한 켤레, 넥타이”(U 2.255)를 그에게서 빌렸다. 오늘이 스티븐이 급료를 받는 날이지만, 멀리건은 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은 하지 않고 “1 파운드를 빌려줘”(U 1.293-94)라고 말한다. 더군다나 멀리건은 스티븐의 남루한 옷차림새를 보고 “셔츠 한 벌과 몇 개의 손수건”(U 1.112-13), “멋진 바지 한 벌”(U 1.117)을 주겠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멀리건이 스티븐에게 물질적으로 호의를 베푸나, 스티븐은 멀리건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인색하다. 그는 멀리건이 두고 간 면뿔물 종지를 가져다주어야 하는지 망설이다가 막상 그렇게 하면서도 “하인의 하인”(U 1.312)이 되었다는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는 “떠도는 바위들”(The Wandering Rocks) 장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동생들과 달리 집을 나와 세를 얻어 사는 특권을 누린다. 그러기에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가 멀리건에게 집을 사용할 권리를 과감히 주어버리고 떠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스티븐은 멀리건에게 열쇠를 단순히 내어주면서 왜 스스로 탑의 소유를 포기하는가? 앞서 스티븐은 탑의 소유에 관한 대화에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다.

—네가 이 탑 사용료를 내니?

—12 파운드야, 벅 멀리건이 말했다.

—국방부장관에게, 스티븐은 그의 어깨 너머로 덧붙여 말했다. (U 1.538-40)

누가 탑 사용료를 내느냐는 헤인즈의 질문에 멀리건은 “12 파운드”(U 1.539)라고 탑 사용료를 말하는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한다. 이 대답을 통해 멀리건은 헤인즈의 질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 자신이 탑의 소유자일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때 스티븐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대답하기 곤란하기 위치에서 있으면서도 이 두 사람 대화에 갑자기 끼어들어 “국방부장관에게”(U 1.540)라고 말한다. 그는 멀리건이 답을 소유하고 있다고 헤인즈가 생각할까봐 적극적으로 끼어든다. 그는 이 순간에는 답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스티븐의 대답도 헤인즈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아니다. 그는 하루 종일 자신의 거주지를 다시 찾을 궁리를 하지 않는다. 정신적 아버지에게 해당하는 불륜을 만나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임종기도를 단호하게 거부하였지만, 탐의 열쇠를 요구하는 멀리건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헤인즈나 독자는 마텔로탐이 누구의 소유인지 혼동될 정도로 스티븐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이다. 마텔로 탐을 멀리건에게 넘겨줄 합당한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에 스티븐의 행동은 부주의해 보인다. 그는 오늘밤 집에도 못 들어가기에 잘 곳이 없다. 스티븐은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문제는 돈을 얻는 거야”(U 1.497)라고 말하나, 그는 “네스토”(“Nestor”) 장에서 교사로서 무능함을 느낀 나머지 갑자기 사표를 제출한다. “텔레마코스” 장에서 거주지를 포기한 것처럼 그의 행동에 책임감이 부족하다. 호머의 텔레마코스는 줄곧 ‘현명한’, ‘신중한’, ‘지혜로운’ 청년으로 묘사되어 선을 상징하는 인물이지만, 스티븐은 그의 성격과 거리가 멀고 선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인물이다.

III

이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텔레마코스”는 조이스가 제시한 스키마에서의 대응관계와 다소 다른 인물묘사를 보여주고 있다. 호머와의 대응관계는 인물간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선악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단선적 해석을 유도한다. 사실 조이스가 창조한 인물들은 선악의 구분이 애매하고, 한가지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인물이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어 호머와의 일대일 대응을 규정짓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한 인물이 다수의 인물의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인물은 대응관계의 인물의 특징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헤인즈 같은 인물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조이스는 『율리시스』의 홍보

목적으로 스키마를 제시하였다가 각 장의 호머식 이름을 출판 시에 제거하였는데, 이것은 옳은 선택이었다. 조이스는 『율리시스』에서 호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창조하였기에 호머에 얽매인 해석을 유도하는 문학 장치를 최소화하려 했다.

조이스의 인물 묘사의 특징은 그가 블룸에 관해 프랭크 버진에게 한 설명에서 유추할 수 있다. 조이스는 블룸이 “all-round”하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조각가가 만든 조각품처럼 “모든 면에서 그를 본다”는 의미라고 말한다(17-18). 이것은 블룸 뿐만 아니라 스티븐과 멀리건 등의 다른 인물묘사에도 적용된다. 조이스는 다면적 인간을 표현하고 있다. 스티븐은 “깨진 거울”이 “아일랜드 예술의 상징”(U 1.146)이라 하였는데 이는 다면적 인간을 창조하는 조이스의 창작기법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카이버드가 주장하듯이 “깨진 거울”은 “입체파(cubist) 그림처럼 하나가 아닌 다양한 자아를 투영한다.” 이 깨진 거울은 “모든 사람은 몇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Ulysses 45). 따라서 조이스가 스키마에서 보여주는 호머와의 일대일 대응은 그의 창작기법과 맞지 않다. 호머는 『율리시스』의 기본적 이해를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하나 조이스의 예술 세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조이스가 창조한 세계는 호머를 넘어서는 다원적 읽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고려대)

인용문헌

- Ames, Keri Elizabeth. "Joyce's Aesthetic of the Double Negative and His Encounters with Homer's *Odyssey*." *Beckett, Joyce and the Art of the Negative*, edited by Colleen Jaurrette, Rodopi, 2005, pp. 15-48.
- Booth, Wayne C. *The Rhetoric of Fiction*. U of Chicago P, 1961.
- Budgen, Frank. *James Joyce and the Making of Ulysses*. Oxford UP, 1989.
- Cheng, Vincent.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UP, 1995.
- Duffy, Enda. *The Subaltern 'Ulysses.'* U of Minnesota P, 1994.
- Ellmann, *The Consciousness of Joyce*. Oxford UP, 1981.
- . *James Joyce*. 2nd ed., Oxford UP, 1982.
- French, Marilyn. *The Book as World*. Paragon House, 1993.
- Geheber, Philip Keel. "A Return to Revivalist Myth in *Finnegans Wake*." *The Power of Form: Recycling Myths*, edited by Ana Raquel Fernandes, Jose Pedro Serra, and Rui Carlos Fonseca,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5, pp. 170-83.
- Gibson, Andrew. *Joyce's Revenge: History, Politics, and Aesthetics in Ulysses*. Oxford UP, 2002.
- Gifford, Don, and Robert J. Seidman.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U of California P, 1988.
- Gilbert, Stuart. *James Joyce's Ulysses*. Alfred A. Knoff, 1952.
- Homer. *The Odyssey*. Translated by Jung Il-young, Sinasa, 2009.
- Joyce, James. *Letters of James Joyce I*. Edited by Stuart Gilbert, Viking Press, 1966.
- . *Ulysses*. Edited by Hans Walter Gabler with Wolfhard Steppe and Claus Melchior, Penguin Books, 1986.
- Kiberd, Declan. *Ulysses and Us: The Art of Everyday Living*. W.W. Norton & Company, 2009.
- . Notes. *Ulysses: Annotated Student's Edition*, by James Joyce, Penguin Books, 1992, pp. 941-1195.

- Norris, David. "A Clash of Titans: Joyce, Homer, and the Idea of Epic." *Studies on Joyce's Ulysses*, edited by Jacqueline Genet and Elisabeth Hellgouarc'h, Presses universitaires de Caen, 2012, pp. 101-18.
- Norris, Margot. *Virgin and Veteran Readings of Ulysses*. Palgrave Macmillan, 2011.
- Platt, L. H. *Joyce and the Anglo-Irish: A Study of Joyce and the Literary Revival*. Rodopi, 1998
- Wachtel, Albert. *The Cracked Looking Glass: James Joyce and the Nightmare of History*. Associated UP, 1992.
- Weir, David. *Ulysses Explained: How Homer, Dante, and Shakespeare Inform Joyce's Modernist Vision*. Palgrave macmillan, 2015.

Abstract

Reading Beyond the Homeric Correspondences:
The Multiple Perspectives in “Telemachus”

Seokmoo Choi

To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of *Ulysses*, Joyce produced two schemas for his novel highlighting the Homeric correspondences. When the novel was finally published in 1922, however, Joyce expunged the Homeric titles from each chapter, and in 1937 he told Nabokov that he regretted his emphasizing of Homer to promote *Ulys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eck if the Homeric correspondences Joyce offered make sense by scrupulously analyzing one of eighteen episodes, “Telemachus” in this article. The Homeric correspondences encourage us to discern between good and bad in “Telemachus,” but Stephen and Mulligan are depicted with multiple identities and cannot be easily defined as good or bad. When Mulligan deprives Stephen of his residence, he is a usurper just like Antinous. However, he also plays the role of Athene, who gives priceless advice to Telemachus. The Homeric correspondences cannot explain the multiple identities of characters Joyce has created in his work. Though Joyce uses Homer in *Ulysses*, he does not confine the character’s identity to the Homeric correspondences. He encourages the readers to read beyond them and find both multiple perspectives and characters with multi-faceted identities.

■ **Key words** : James Joyce, *Ulysses*, “Telemachus,” Homer, *Odyssey*, multiple perspectives, identity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 “텔레마코스,” 호머, 『오디세이』, 다
원적 관점, 정체성)

논문접수: 2019년 5월 20일

논문심사: 2019년 6월 12일

게재확정: 2019년 6월 16일